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돈카츠와 돈가스

“밥으로 하시겠습니까?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경양식집에서 이런 질문 한 번쯤 받아 보셨다면, 혹은 소개팅이나 연애를 하면서 돈가스 접시를 앞에 두고 서툰 ‘칼질’ 한 번이라도 해 보신 분이라면, 당신은 이미 장년층이다. 그렇다고 돈가스가 반드시 추억의 음식인 것만은 아니다. 지금도 학교나 군대 급식에서 반찬으로 돈가스가 나오는 날은 여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세대마다 기억하는 방식이 다를 뿐, 돈가스는 여전히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외래 음식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헛갈린다. 과연 이 음식의 올바른 명칭이 돈카츠인지 아니면 돈가스인지.

반포했다. 직서는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인들의 식생활을 규정한다. 왕의 말을 철석같이 따랐던 일본인들은 무려 1200년 동안 이를 지켰다. 그러나 근대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 국가로 탈바꿈한 일본은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지식인과 기술자를 유럽과 미국으로 보냈다. 유럽과 미국을 처음 방문한 일본인들은 서양의 앞선 기술과 문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특히 그들을 절망에 빠트린 것은 자신들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서양인들의 체구였다. 기술과 문화는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었지만 신체 ‘사이즈’ 만큼은 단기간에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했다. 육식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당시 일본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서양인들처럼 육식을 해야만 그들처럼 크고 단단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무려 1200년 동안 지켜 왔던 ‘육식 금지’의 역사는 그렇게 무너졌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평생 고기를 멀리해 왔던 사람들에게 육식은 낯설고 두려운 방식이었다. 경계심을 풀어 줄 음식이 필요했다. 그때 발견한 음식이 ‘코틀레트’(cotelette)였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전통 음식이었던 코틀레트는

송아지나 돼지고기 등을 넓게 펴서 소금과 후추 등으로 간을 하고 밀가루, 계란 노른자, 빵가루를 얹혀 프라이팬에 버터를 칠석같이 따랐던 일본인들은 무려 1200년 동안 이를 지켰다. 그러나 근대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가 포크 까쓰레쓰가 온전히 일본 음식이 되길 원했다. 그 과정에는 아주 분명한 원칙 하나가 있었다. 그들의 주식인 밥과 어울려야 했다. 포크 까쓰레쓰의 개량이 시작됐다. 우선 포크와 나이프를 버렸다. 젓가락만으로 먹을 수 있어야 일본 음식답다고 믿었다. 기름에 튀겨 낸 고깃덩어리를 칼로 잘랐다. 밥반찬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간이 필요했다. 영국의 우스터소스를 개량해 이를 끼얹거나 짝어 먹도록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튀김국을 곁들였다. 비로소 일본 음식다워 보였다. 내친김에 명칭에서도 서양의 느낌을 지워 버렸다. 포크는 돼지 돈(豚)으로 바꾸고 까쓰레쓰는 카츠로 줄였다. ‘돈카츠’는 이렇게 탄생했고 이후 일본 근대 음식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일제강점기 서양 음식의 대표 주자로 한반도에 전해진 포크 까쓰레쓰는 해방 이후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착

된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원형인 코틀레트에 가깝게 변형됐다. 스프를 곁들이고 여전히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며 심지어 명칭도 ‘포크 커틀릿’이라는 영어식 표현을 쓰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양분식집’으로 상징되는 대중음식집에서는 대중화의 길을 걷는다. 주식인 밥과 어울리도록 한다는 목표는 일본과 같았지만 방식은 달랐다. 한국식과 서양식을 절충하는 방식을 택한다. 고기를 최대한 얇고 넓게 펴고 우스터소스 대신 브라운 그레이소스를 베이스로 만든 소스를 끼얹고 포크와 나이프를 유지하는 대신 손가락과 젓가락을 더했다. 더욱 극적인 것은 김치, 깍두기, 풋고추를 곁들이고 된장찌개까지 함께 냄으로써 일종의 백반 개념을 구현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인이 분식집이나 기사 식당 등에서 흔히 만나는 돈가스 혹은 ‘돈가스’다.

코틀레트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돈카츠와 돈가스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다. 돈카츠가 일본 음식이라면 돈가스는 당연히 한국 음식이다. ‘돈가스 백반’이나 ‘왕돈가스’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음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이 대담한 전통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맛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우리는 노벨상에 목마르다



박진우 보리안과병원장

매년 12월 10일 노벨이 사망한 날에 맞춰 스웨덴에서는 노벨상 시상식이 열린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일본인 혼조 다스쿠 씨가 발표되자 미디어에서는 부러움과 시기에 찬 보도로 우리나라의 과학 교육 문제점과 과학자에 대한 처우 및 국가 대책 부족을 지적하는 기사를 쏟아내었다.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스웨덴이라는 나라 이름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노벨이라는 사람이 위인 전집에는 꼭 들어있는 훌륭한 사람이고 노벨상은 많은 이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최고의 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노벨은 본인의 전 재산으로 노벨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설치하여 그 이자로 매년 인류를 위해서 최대의 공헌을 한 사람

들에게 삼금 형식으로 수여하게 유언을 남겼다. 그리고 유언장의 내용 중 가장 위대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후보자의 국적을 일체 고려해서는 안되고 스칸디나비아 사람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 수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부분이다.

노벨상은 처음에는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5가지 부문에서 나중에 경제학상이 추가되어 모두 6개 부문의 상이 수여되며 1901년부터 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시상되고 있다. 특이하게도 수상자가 결정될 때 생존해 있는 사람에게만 시상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과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 우리나라도 노벨상 배출국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의 면면을 보면 엑스레이(X-ray)를 발견하여 1회 물리학상을 수상한 린트겐, 페니실린을 발견하여 감염으로부터 많은 생명을 구한 플레밍, DNA 구조를 밝혀 유전자 시대의 여명을 활짝 연 왓슨과 크릭, ABO 혈액형을

만든 란트슈타이너, 종이 울리던 침을 흘리는 개의 조건 반사실험으로 유명한 파블로프 등 어디서 이름 한 번은 들어보았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최근 수상자들의 업적도 후세에는 더욱 크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나는 안과 의사로 녹내장, 백내장과 함께 시력 교정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고 빠른 시력 회복과 충격에 강한 특징이 있는 스마일 수술의 원천 기술이 올해 201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고출력 레이저 기술인 CPA(Chirped Pulse Amplification)라는 것이 SMILE(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에 이용되고 있는데, 이 기술을 개발한 아서 에슈너와 제라드 무어가 2018년 수상자가 된 것이다. 노벨위원회는 이 기술의 좋은 예로 시력 교정술에 이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안경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왔다고 시상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CPA 기술은 에너지의 집적 기술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안과 수술에서 보다 적은 오차를 가지면서 정확한 부위에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 주위에 손상을 주지 않는, 말하자면 아주아주 정교한 레이저 칼을 만든데 없어서는 안되는 기술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레이저 칼을 가짐으로써 안과외과는 투명하고 얇은 각막과 같은 조직에 아주 적은 에너지로 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을 규칙적으로 뚫을 수 있게 되어 시력 교정 수술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노벨상이 유명하지만 내 삶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매일 시행하는 수술의 기본 기술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하고, 의학사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확인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노벨상이 가지는 이름의 무게를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노벨 물리학상이나 생리의학상에서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과학자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빠른 시간내에 뛰어난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훌륭한 업적을 내서 노벨상을 받게 되고, 그 기술이 사용된 장비로 내게 진료받는 환자들에게 더 큰 치료 효과를 줄 수 있는 날이 꼭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고

한전공대, 시도 상생의 모범 만들자



차상현 장성군의회 의장

요즘 호남권은 한전공대 유치 열기로 연일 뜨겁다. 한전공대뿐 아니라 연구기관들이 함께 들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공대 유치는 각 지자체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면 안된다. 한전공대 유치 과정도 하나의 시도 상생의 모델이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이 한전공대 설립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경쟁이 아닌, 상생만이 한전공대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 북구도 최근 전남 장성을 포함한 ‘첨단 3지구’라는 카

드를 들고 뛰어 들었다고 한다. 첨단 3지구는 광주 북구와 장성에 거쳐 조성된 곳이다. 과거 빛가람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광주에는 통 큰 결정을 했다. 광주에 혁신도시를 유지하지 않는 대신, 전남 지역에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전국의 모범이 됐다.

이런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생 정신이 담긴 곳이 첨단 3지구라고 할 수 있겠다. 광주와 전남, 전남과 광주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신학원 집적화를 통한 연계 협력, 전남 북부권 발전을 이끌어내는 광주-전남 상생을 큰 골자로 한 한전공대 유치 논리는 타지역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이 필자의 조심스런 생각이다.

‘첨단 3지구’는 장성 부지가 70%나 되고, 장성군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는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부지이다. 인공 지능 지원 기반의 과학기술창업단지 등이 들어서게 되면, 그야말로 광주-전남 미래 첨단 4차 산업의 거점이 될 곳이다.

또한 장성의 나노산단과 광주 북구에 조성된 첨단 1·2지구의 집적화된 산학연 클러스터와 인접해 있다. 이와 함께 접근성이 뛰어난 주거·상업단지, 연구 개발 특구로서의 혜택, 광역 교통망과 연계가 수월한 탁월한 교통편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첨단 3지구는 한전공대가 단기간에 세계 최고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라 하겠다. 한마디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이라는 반증이다.

이처럼 전남 장성과 광주 북구를 아우르는 부지에 한전공대가 들어선다면 광주-전남 동반성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임은 당연지사다.

특히 지난 2005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유치 실패로 상실감이 컸던 장성군민들의 아픔도 달래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빛가람 공동혁신도시는 전남 장성, 담양, 나주 등이 각자의 논리로 치열한 유치전 끝에 결국 나주로 확정됐다. 당시 장성, 담양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선호했고, 천혜의 자연 환경과 광주시의

차세대 전략 산업의 거점인 첨단산단과 의연계성 등을 주요 논리로 당위성을 펼쳤지만 나주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 후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이 나주로 잇따라 입주했다. 또한 에너지밸리 기업 유치, 나주혁신산단 내 전 남 테크노파크 2단지 건립 등도 이상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나주만의 혁신도시로 굳혀가는 모양새다.

반면 장성, 담양을 비롯한 전남 북부권은 어떠한가? 공동혁신도시 유치 실패 후 13여 년 동안 지역 발전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었음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공대를 광주 북구를 포함한 전남 장성의 첨단 3지구로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지나친 욕심일까? 아니다. 오히려 전남 북부권 발전을 통한 광주와 동반 성장의 새로운 전략이자 전북 남부권, 더 나아가 충청권과의 상생 연계 발전을 마련하는 혁신 벨트 구축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하겠다.

社說

지나친 용역 남발 시민 혈세 낭비 아닌가

광주시가 때로는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학술 연구 용역을 남발하면서 관련 예산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게다가 발주 단계에서 절차상 하자가 많은 것은 물론 사후 평가와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학술 연구 용역비만 47건에 69억 2500만 원에 달했다. 2016년에 비하면 41억 5700만 원이 늘어 액수로 2.5배, 건수 기준 1.6배 증가한 규모다. 2017년에 비해서도 18건, 31억 9500만 원이나 증가했다.

절차상 문제점도 많았다. 47건 중 15건의 예산이 조례에 명시된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의회에 상정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 계획 수립(2억 3300만 원)이나 군공항 이전 사업비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5억 원), 미세먼지 발생원 실태 조사(2억 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광주·전남 ‘교통 안전지수’ 전국 최하위라니

광주·전남 지역 ‘교통사고 안전지수’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공개한 ‘2018년 지역 안전지수’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각각 5등급을 받았다. 1등급은 가장 안전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하다는 의미다

이번 평가는 모두 7개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전남의 경우 교통사고 분야에서 4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행안부는 그 원인으로 전남의 도로 면적당 교통 단속 CCTV가 평균 1.9대(전국 평균 3.6대)로 15위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CCTV 확충 등 강력한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지구별로는 광주 동구가 교통사고 부문에서 4년 연속 5위, 전남에서는 나주시가 같은 부문 5위로 평가됐다. 이번 지수 발표는 지난해 통계를 기초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일정 조정상 어려움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기 위한 사전 심의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후 평가와 관리도 조례에는 용역 후 1개월 내 자체 평가, 6개월 이내 결과 활용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굳이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까지 외부에 연구를 맡기는 관행을 되풀이해 왔다. 정책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구색 맞추기나 책임 회피용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잦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질타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용역은 타당성부터 면밀히 따져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공무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매년 쏟아지는 용역의 성과물이 일회용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아카이브 구축 등 재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로 한 것이지만 올해도 상황이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교통사고 도사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 같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1~11월)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남이 16.2명(전국평균 6.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광주는 4.9명이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띠를 매는 등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강력한 신호인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존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 미비한 조항과 제도가 있다면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경찰에서도 지역별 교통사고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지도·단속에 나서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안내 방송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 언젠가 본 단편 영화와 그에 얽힌 사연이다. 7분 분량의 영화엔 대사가 거의 없었다. 들리는 소리 대부분은 영국 지하철 역사의 소음이다. 등장인물은 노년의 여성. 매일 어느 지하철 역사를 찾는 그녀는 정작 그곳에 도착해서는 지하철을 타지 않는다. 대신 선로 앞 벤치에 한참을 우두커니 앉아 있다 오곤 한다. 다만, 어떤 ‘소리’에 귀를 쫓궁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달랠다. 세월이 흘러 안내 방송이 디지털로 바뀌자 180km 떨어진 엠벵크먼트역에서만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그녀는 두 시간 넘게 걸리는 역을 매일 방문한다. 하지만 어느 날 이곳 역시 디지털 안내 방송으로 변해 버리고, 그녀는 여무원을 찾아간다. 그녀의 사연이 전해지자 런던 교통국은 다시 남편의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시작했고, 집에서 들을 수 있도록 남편의 음성을 디지털로 복원해 선물했다고 한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법

단편 영화 ‘마인드 더 갭’(Mind the gap)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런던 엠벵크먼트 역에 출근 도장을 찍는 한 여인의 이야기다. 기차를 타지 않고 있어만 있던 여인은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역무원에게 ‘마인드 더 갭’(Mind the gap)을 읊조린다. ‘마인드 더 갭’은 열차와 정류장 사이를 조심하라는 안내 방송 문구다.

실화 속 여인 마가렛의 남편은 심장 마비로 세상을 떠난다. 그녀는 짧은 시절 남편이 지하철 안내 방송을 녹음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고 집 앞 역에서 매일

사연을 접하며 누군가를 기억하고, 추억을 함께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 대상이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곱다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이틀테면 가족일 수도 있었다.

송년회 등 그 어느 때보다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연시다. 애써 시간을 내 그동안 뜸했던 이들과도 만나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며 오랫동안 서로를 기억할 수 있는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김미은 문화부장·편집부국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